

3.2 속담, 관용구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반영한다. 언어 속에 문화가 녹아 있는 것들로로는 속담, 관용구 등이 있다. 적성검사에서는 속담, 관용구 등에 담긴 의미를 묻거나 주어진 문맥에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속담은 예부터 민간에서 생겨 전해 오는 쉬운 격언으로서 민중의 지혜가 응축되어 널리 구전되는 것들이다. 관용구는 일반 대중이 관습적으로 널리 쓰는 말이다. 속담과 관용구를 많이 알고 있다면 정답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속담과 관용구를 미리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시된 문제에서 의미를 추리해야 한다.

기본 지식

1 속담

가게 기둥에 입춘(立春): 옛날에는 가게 건물이 대개 초라했는데, 그런 초라한 건물에 입춘방(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춘이 되어 대문이나 기둥에 한 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며 붙이던 글귀)을 써 붙인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에서, 격에 어울리지 않음을 이르는 말

가까운 남이 먼 일가보다 낫다: 이웃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다 보면 먼 곳에 있는 일가보다 더 친하게 되어 서로 도우며 살게 된다는 것을 이르는 말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살아가기도 어려운 가난한 집에 제삿날이 자꾸 돌아와서 그것을 치르느라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으로, 힘든 일이 자주 닥쳐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는 날이 장날: 일을 보러 가니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는 말에 채찍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더 빨리 하라고 독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

가는 방망이 오는 흥두깨: 이쪽에서 방망이로 저쪽을 때리면 저쪽에서는 흥두깨로 이쪽을 때린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보다 더 가혹한 값을 받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된다는 말

가랑잎에 불붙듯: 바짝 마른 가랑잎에 불을 지르면 건잡을 수 없이 잘 탄다는 뜻으로, 성미가 조급하고 도량이 좁아 걸핏하면 발끈하고 화를 잘 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랑잎으로 눈 가리기: 자기의 존재나 허물을 숨기려고 미련하게 애쓰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더 바스락거리는 가랑잎이 덜 바스락거리는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나무란다는 뜻으로, 자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허물만 나무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말

가마솥 밀이 노구솥 밀을 더럽다고 한다: 더 시꺼먼 가마솥 밀이 덜 시꺼먼 노구솥 밀을 보고 도리어 검다고 흥본다는 뜻으로, 남 못지않은 잘못이나 결함이 있는 사람이 제 흥은 모르고 남의 잘못이나 결함만을 흥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물에 콩 나듯: 가뭄에는 심은 콩이 제대로 싹이 트지 못하여 드문드문 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나 물건이 어쩌다 하나씩 드문드문 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 가뭄보다 장마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말. 가뭄은 아무리 심해도 농사 피해에 그치지만 장마로 홍수가 나면 모두 씻겨가 남는 것이 없고 인명 피해도 엄청나다.

가을 무 쫄지가 길면 겨울이 춥다: 겨울이 추워지는 해는 가을 무들도 겨울 준비로 뿌리가 길어진다는 뜻

가을 중 싸대듯: 수확이 많은 가을철에 조금이라도 더 시주를 얻기 위하여 중이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여기저기 분주히 돌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재는 게 편이요 초록은 한빛이라: 가재는 게 편을 들고 풀빛과 녹색은 같은 빛깔이란

뜻으로, 모양이나 형편이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
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나무는 살랑거리는 바람
에도 잎이 흔들려서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다는 뜻으로,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에게는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지조 없이 이편에 붙
었다 저편에 붙었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갈수록 태산: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갈치가 갈치 꼬리 문다: 같은 족속이나 같은 처지에 있는 무리들이 돕기는커녕 서로 모함
하거나 해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값도 모르고 싸다 한다: 일의 속사정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경솔하게 이러니저러니 말함
을 이르는 말

갓바치 내일 모레: 갓바치(가축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흔히 맡은 물건을 제날짜에 만들어
주지 않고 약속한 날에 찾으러 가면 내일 오라 모레 오라 한다는 데서, 약속한 기일을
이날 저 날 자꾸 미루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같은 값이면 붉은 치마라는 뜻으로, 이왕이면 더 좋은 쪽을 택한
다는 말. ‘다홍치마’는 더 좋은 물건을 이르는 말이므로 ‘명품, 유기농산물, 정품’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개 꼬리 삼 년 두어도 황모 못 된다: 본바탕이 좋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하여도 그 본질
이 좋아지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눈에 띈다
는 것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개 발에 편자: 개발에 편자(말굽에 대어 붙이는 U자 모양의 쇠조각)를 댄 것처럼, 옷차림
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자신의 처지와 어울리지 않고 분수에 넘침을 비유적으로 이르
는 말

개 보름 쇠뿔: 대보름날 개에게 음식을 주면 여름에 파리가 많이 꼬인다고 하여 개를 굶
긴다는 뜻으로, 남들은 다 잘 먹고 지내는 명절 같은 날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냄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 돈을 벌 때는 천한 일이라도 하면서 벌고, 쓸 때는 떳떳하
고 보람 있게 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개구리도 움쳐야 된다: 뛰기를 잘하는 개구리도 뛰기 전에 움츠려야 한다는 뜻으로, 아무
리 급하더라도 일을 이루려면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함을 이르는 말

개도 무는 개를 돌아본다: 같은 개끼리도 사나운 개를 두려워하듯이, 사람 사이에서도 영악하고 사나운 사람에게는 해를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리어 잘 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아주 흔하던 것도 정작 필요해서 찾으려니까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

개똥밭에 인물 난다: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를 이르는 말

개머루 먹듯: 참맛도 모르면서 바빠 먹어 치우는 것을 이르는 말

개미구멍으로 공든 탑 무너진다: 개미구멍만한 조그마한 실수나 방심으로 큰일을 망쳐 버린다는 말

개밥에 도토리: 개는 도토리를 먹지 아니하기 때문에 밥 속에 있어도 먹지 아니하고 남긴다는 뜻에서, 파들림을 받아서 여럿의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거적문에 금 구슬: 거적문(짚으로 만든 문)에 금 구슬을 단 것처럼,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자신의 처지와 어울리지 않고 분수에 넘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거적문에 돌쩌귀

건너다보니 절터: 일의 결과가 신통치 않음이 뻔하게 내다보인다는 말

검둥개는 돼지 편: 검둥개는 돼지 편을 들듯이, 모양이나 형편이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계으른 선비 책장 넘기기: 계으른 사람이 일은 안 하고 빨리 그 일에서 벗어나고만 싶어 함을 이르는 말

계란에도 뼈가 있다: 늘 일이 잘 안되던 사람이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났건만, 그 일마저 역시 잘 안됨을 이르는 말 = 계란유골(鷄卵有骨)

겉술에 낫내기: 제 물건을 쓰지 않고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낸다는 말

고기는 씹어야 맛있요, 말은 해야 맛있이라: 고기의 참맛을 알려면 겉만 훑을 것이 아니라 자꾸 씹어야 하듯이,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 할 말은 시원히 다 해 버려야 좋다는 말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 무슨 일이든지 늘 하던 사람이 더 잘한다는 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강한 자들의 싸움에 공연히 약한 자가 중간에 끼여 해를 입는다는 것을 이르는 말 = 경전하사(鯨戰蝦死)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어려운 일이나 고된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털이 바늘같이 꺾끗한 고슴도치도 제 새끼의 털

이 부드럽다고 옹호한다는 뜻으로, 자기 자식의 나쁜 점은 모르고 도리어 자랑으로 삼는다는 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공연히 의논함을 이르는 말

고양이 보고 반찬 가게 지키라는 격: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고양이가 생선을 먹을 것이 뻔한 일이란 뜻으로, 어떤 일이나 사물을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맡겨 놓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 걱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고양이 쥐 생각: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 주는 척함을 이르는 말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 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 먹듯: 애써 알뜰히 모아 둔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헐어 써 없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과부 설움은 흠아비가 안다: 남의 곤란한 처지는 직접 그 일을 당해 보았거나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잘 알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광에서 인심 난다: 자신이 넉넉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다소 방해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할 일은 하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일을 분명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고 슬그머니 얼버무리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말

구멍은 깎을수록 커진다: 잘못된 일을 변명하고 얼버무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일이 어려워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는다: 구운 게라도 혹시 물지 모르므로 다리를 떼고 먹는다는 뜻으로, 틀림없을 듯하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낭패가 없음을 이르는 말

군불에 밥 짓기: 어떤 일에 걸따라 다른 일이 쉽게 이루어지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해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굳은 땅에 물이 권다: 험하게 쓰지 않고 아끼는 사람이 재산을 모으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뻘다: 외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을 내쫓거나 해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자손이 빈한해지면 선산의 나무까지 팔아 버리나 줄기가 굽어 쓸모없는 것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뜻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제구실을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곳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남의 일에 쓸데없는 간섭을 하지 말고 되어 가는 형편을 보고 있다가 이익이나 얻도록 하라는 말

궁하면 통한다: 매우 궁박한 처지에 이르게 되면 도리어 껴 나갈 길이 생긴다는 말

귀가 보배라: 배우지 않았으나 얻어들어서 아는 것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1. 분명하지 아니하게 우물우물 말하는 소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이치에 맞지 않는 엉뚱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이르는 말

귀신이 곡할 노릇: 신기하고 기묘하여 그 속내를 알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 나물에 그 밥: 서로 비슷한 수준이어서 별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말

그림의 떡: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

그물에 든 고기요 쓰아 놓은 범이라: 이미 잡혀 움짱달짝 못하고 죽을 지경에 빠졌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글 잘 쓰는 사람은 필묵을 탓하지 않는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능숙한 사람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좋지 아니하더라도 잘한다는 말

굽어 부스럼: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공연히 건드려서 걱정을 일으킨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금강산도 식후경: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배가 불러야 흥이 나지 배가 고파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급하면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 일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것이므로, 아무리 급해도 순서를 밟아서 일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둥을 치면 대들보가 운다: 1. 직접 맞대고 탓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넌지시 말을 하여도 알아들을 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주(主)가 되는 대상을 탓하거나 또는 그 대상에 일격을 가하거나 하면 그와 관련된 대상들이 자연히 영향을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름 먹인 가죽이 부드러다: 뇌물을 쓰면 일이 순조롭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힌다: 조그마한 것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길은 갈 탓이요, 말은 할 탓이라: 같은 말이라도 하기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이 다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길이 아니거든 가지 말고 말이 아니거든 듣지 말라: 언행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이거든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가 나는 사건과 배가 떨어지는 사건은 우연히 동시에 일어난 것인데 까마귀가 배를 먹어서 떨어진 것으로 오해를 받게 생겼다는 뜻으로, 공교롭게도 어떤 일이 같은 때에 일어나 남의 의심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

까마귀가 검기로 마음도 검겠나: 1. 겉모양이 허술하고 누추하여도 마음까지 악할 리는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양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까마귀밥이 되다: 거두어 줄 사람 없이 죽어 버려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까치 배 바닥 같다: 실속 없이 흰소리를 잘하는 것을 비웃는 말

간간오월: 해가 길어서 일하기 지루한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5월을 이르는 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열 손가락 중 어느 하나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에게는 모두 소중하다는 말

꼬리가 길면 밟힌다: 나쁜 일을 아무리 남모르게 한다고 해도 오래 두고 여러 번 계속하면 결국에는 들키고 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꼭지가 물렀다: 과일의 꼭지가 무르면 그 과일은 충분히 익었으므로 수확할 때가 되었다는 뜻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무르익었다는 말

콩지 빠진 새 같다: 볼품이 없거나 위신이 없어 보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꿀 먹은 병어리: 속에 있는 생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꿀도 약이라면 쓰다: 좋은 말이라도 충고라면 듣기 싫어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꿀은 달아도 벌은 쏜다: 좋은 것을 얻으려면 거기에는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말

핑 구워 먹은 소식: 소식이 전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음식이 귀하던 시절에 핑 고기는 특별하고 귀한 요리였다. 그런데 핑 한 마리는 고기가 많지 않아서 나눠 먹을 여유가 없었다. 그렇다고 자기네만 핑고기를 먹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핑고기가 생기면 소리 소문도 없이 먹었던 데서 갑자기 소식이 없는 경우를 가리켜 ‘핑 구워 먹은 소식’이라고 하게 되었다.

핑 떨어진 매: 쓸모없게 된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핑 먹고 알 먹는다: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핑 잡는 것이 매: 핑을 잡아야 매라고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끝 부러진 송곳: 있기는 있으나 쓸모없게 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 먹자니 싫고 개 주자니 아깝다: 자기에게 소용이 없으면서도 남에게는 주기 싫은 인색한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간 놈의 집구석이라: 집 안이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귀 샌님 쳐다보듯: 눈을 치뜨고 말뚱말뚱 쳐다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귀에 짐을 지고 타나 신고 타나: 나귀를 타면서 자기가 가진 짐을 나귀 등에 실으면 더 무거운 것이라고 제가 지고 타지만 그것은 그대로 신고 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뜻으로, 이러나저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는 바람 풍(風) 해도 너는 바람 풍 해라: 옛날 어느 서당에서 선생님이 ‘바람 풍(風)’ 자를 가르치는데 혀가 짧아서 ‘바담 풍’으로 발음하니 학생들도 ‘바담 풍’으로 외운 데서 나온 말로, 자신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남보고는 잘하라고 요구하는 말

나루 건너 배 타기: 배를 타고 나루를 건너야 하는 법인데 나루를 건너 후 배를 탄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나 순서가 있어 건너뛰어서는 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부분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무에 오리라 하고 흔들는 격: 남을 꺾어 위험한 곳이나 불행한 처지에 빠지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중 난 뿔이 우뚝하다: 1. 나중에 생긴 것이 먼저 것보다 훨씬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후배가 선배보다 훌륭하게 되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남에게 악한 짓을 하면 자기는 그보다 더한 벌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남의 다리 굽는다: 남의 일을 제 일로 잘못 알고 수고한다는 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물건은 남의 것이 제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일은 남의 일이 제 일보다 더 쉬워 보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남의 밥에 든 콩이 굵어 보인다: 물건은 남의 것이 제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일은 남의 일이 제 일보다 더 쉬워 보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남의 제사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남의 일에 공연히 간섭하고 나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남이 장 간다고 하니 거름 지고 나선다: 자기 주견이 없이 남이 한다고 덩달아 따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 기억(기) 자 모양으로 생긴 낮을 보면서도 기억 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이르는 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아무리 비밀로 한 말도 누군가가 듣는다는 뜻으로, 항상 말조심을 하라는 말

낮가죽이 두껍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다.

내 돈 서 푼은 알고 남의 돈 칠 푼은 모른다: 제 것은 소중히 여기면서 남의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을 비꼬는 말

내 코가 석 자: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져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냉수 먹고 이 쑤시기: 잘 먹은 채하며 이를 쑤신다는 뜻으로, 실속은 없으면서 무엇이 있는 체함을 이르는 말

네 떡 내 먹었더냐: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모르는 체 시치미를 떼고 덤덤하게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노는 입에 염불하기: 일 없이 그저 노는 것보다 되든 안 되든 무엇이나 하는 것이 낫다는 말

노루 꼬리가 길면 얼마나 길까: 보잘것없는 재주를 지나치게 믿음을 비웃는 말

높은 나무에는 바람이 세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지위의 안정성이 낮고 신변이 위태로워진다는 말

누울 자리 봐 가며 발을 뺨어라: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여 미리 살피고 일을 시작하라는 말

누워서 침 뱉기: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눈엣가시: 몹시 밍거나 싫어 늘 눈에 거슬리는 사람

느린 걸음이 잔걸음: 느리게 걷는 듯하여도 꾸준히 걸으면 빨리 가게 된다는 뜻으로, 일을 천천히 해도 정확하게 하여 실수가 없으면 결국 빨리 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 황소걸음처럼, 걸보기에 느리기는 하여도 일을 믿음직스럽고 실속 있게 함을 이르는 말

-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어떤 일에 남보다 늦게 재미를 붙인 사람이 그 일에 더 열중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다 된 죽에 코 풀기:** 거의 다 된 일을 망쳐버리는 주책없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단 맛 쓴 맛 다 보았다:** 세상의 온갖 일을 다 겪어 보았다는 말
- 단술에 물 붓기:** 형편이 이미 기울어 아무리 도와주어도 보람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달걀 지고 성 밑으로 못 가겠다:** 이미 다 썩은 달걀을 지고 성 밑으로 가면서도 성벽이 무너져 달걀이 깨질까 두려워 못 간다는 뜻으로, 무슨 일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걱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달도 차면 기운다:** 세상의 온갖 것이 한번 번성하면 다시 쇠하기 마련이라는 말
- 달리는 말에 채찍질:** 기세가 한창 좋을 때 더 힘을 가한다는 말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옳고 그름이나 신의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닭 소 보듯, 소 닭 보듯:** 서로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있는 사이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닭 잡아 꺾을 나그네 소 잡아 꺾는다:** 어떤 일을 처음에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닭 잡아먹고 오리 발 내놓기:** 옳지 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엉뚱한 수작으로 속여 넘기려 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개에게 쫓기던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자 개가 쫓아 올라가지 못하고 지붕만 쳐다본다는 뜻으로,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닭의 대가리가 소꼬리보다 낫다:** 크고 훌륭한 자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고 보잘것없는 데서 남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는 말
- 닭의 목을 베고 잔다:** 닭의 목을 베고 자다가 닭과 함께 새벽 일찍 깨어난다는 뜻으로, 새벽잠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닭의 새끼 봉 되랴:** 닭은 봉이 될 수 없듯이, 본래 타고난 성품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당장 먹기엔 껏감이 달다:** 그다지 실속은 없으나 당장 좋으니 취할 만하다는 말
-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여기저기에 빗을 많이 진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도갓집 강아지 같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나드는 도갓집(두레일을 주관하는 집) 강아

지처럼 사람의 동정을 잘 살피며 눈치가 빠른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도둑을 뒤로 잡지 앞으로 잡나: 도둑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잡아야지 의심만으로는 잡을 수 없다는 뜻으로, 확실한 증거가 없이 추측만으로는 남을 의심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이르는 말 = 적반하장(賊反荷杖), 방귀 편 놈이 성낸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도랑 막고 고래 잡을까: 도랑 막고서는 고래를 잡을 수 없음이 자명한데, 되지도 않을 허망한 일을 분별없이 바란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 지저분한 도랑을 깨끗이 치우던 중 뜻하지 않게 가재도 잡게 되었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돈 떨어지자 입맛 난다: 무엇이 없어지는 것을 본 뒤면 그것이 더 애석하게 여겨지고 더 간절하게 생각난다는 말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라: 돌로 튼튼하고 번듯하게 지은 다리라도 혹시 무너질지 모르므로 두드려 보면서 건너라는 뜻으로,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

돌도 십 년을 보고 있으면 구멍이 뚫린다: 무슨 일이나 정성을 들여 애써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

동냥은 안 주고 쪽박만 깬다: 요구하는 것은 안 주고 도리어 방해만 한다는 말

동의 일 하려면 서의 일 한다: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 판전만 부린다는 말

돼지 발톱에 봉숭아물 들인다: 돼지발톱에 봉숭아물을 들이는 것처럼,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자신의 처지와 어울리지 않고 분수에 넘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곡식을 되로 빌려 주고 말(10되)로 되돌려 받는다는 뜻으로, 조금 주고 그 대가를 많이 받는다는 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잘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장래성이 엿보인다는 말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1. 무슨 일이든지 두 편에서 서로 뜻이 맞아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 2. 서로 똑같기 때문에 말다툼이나 싸움이 된다는 말

둘러치나 메어치나 매한가지: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로인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등겨 먹던 개는 들키고 쌀 먹던 개는 안 들킨다: 크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들키지 않고,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만 들켜 남의 죄까지 뒤집어쓰게 된다는 말

등잔 밑이 어둡다: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렵다는 말

등치고 간 내먹다: 겉으로는 위하여 주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해를 끼친다는 말

땅 짚고 헤엄치기: 일이 매우 쉽다는 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 겉으로는 위하여 주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해하고 헐뜯는 사람이 더 밍다는 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우연히 운 좋은 기회에, 하려던 일을 해치운다는 말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해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미리부터 다 된 일로 알고 행동한다는 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 피하지: 악하거나 같잖은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피하는 것은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피하는 것이라는 말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겉모양보다 내용이 훨씬 낫다는 말 ↔ 빛 좋은 개살구

마른나무에 물 내기: 없는 것을 억지로 짜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마른하늘에 벼락 맞는다: 뜻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뜻밖에 입는 재난을 이르는 말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음식을 매우 빨리 먹어 버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말 갈 데 소 간다: 1. 안 갈 데를 간다는 말 2. 남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말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집안에 잔말이 많으면 살림이 잘 안된다는 말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마음속으로만 애태울 것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말을 하여야 한다는 말

말 죽은 데 체 장수 모이듯: 칠팔로 쓸 말총을 구하기 위하여 말이 죽은 집에 체 장수가 모인다는 뜻으로, 남의 불행은 아랑곳없이 제 이익만 채우려고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이르는 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다는 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

말은 보태고 떡은 떼다: 말은 퍼질수록 더 보태어지고, 음식은 이 손 저 손으로 돌아가는 동안 없어지는 것이라는 말

말은 해야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마땅히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말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상대방이 말을 고맙게 하면 제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후하게 해 주게 된다는 말

말이 씨가 된다: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었을 때를 이르는 말

망건 쓰고 세수한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그 다음에 망건을 쓰는 법인데 망건을 먼저 쓰고 세수를 한다는 뜻으로, 일의 순서를 바꾸어 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망건 쓰자 파장(罷場): 망건(상투를 튼 사람이 머리에 두르는 그물 모양의 물건)을 쓰고 장에 나가보려 하는데 벌써 장이 끝났다는 뜻으로, 때를 놓쳐 일을 이루지 못함을 이르는 말

맥도 모르고 침통 흔든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일을 하려고 함을 이르는 말

메뚜기도 유월이 한철이다: 1. 때를 만난 듯이 날뛰는 사람을 빗대어 이르는 말
2. 무엇이나 한창때는 짧다는 뜻

머느리 늙어 시어미 된다: 과거에 남의 아래에서 겪던 고생은 생각지도 않고 도리어 아랫 사람에게 심하게 대함을 비꼬는 말

명태 한 마리 놓고 탄전 본다: 하고 있는 일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일을 함을 이르는 말

모기 보고 칼 빼기: 1. 시시한 일로 소란을 피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어울리지 않게 엄청나게 큰 대책을 씬을 이르는 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1.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남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
2. 강직한 사람은 남의 공박을 받는다는 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 되었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말

모시 고르다 베 고른다: 처음에 뜻하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에 이름을 이르는 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악한 사람을 가까이하면 반드시 그 화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목구멍의 때를 벗긴다: 오랜만에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음을 이르는 말

목구멍이 포도청: 먹고살기 위하여,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제일 급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되어 있다는 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 되지못한 것이 엇나가는 짓만 한다는 말

무당이 제 곳 못하고 소경이 저 죽을 날 모른다: 남의 일은 잘 처리하여도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하기 어렵다는 말

- 무른 땅에 말뚝 박기:** 1. 몹시 하기 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세도 있는 사람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확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말
- 무자식 상팔자:** 자식이 없는 것이 도리어 걱정이 없이 편하다는 말
- 물 본 기러기 꽃 본 나비:** 1. 바라던 바를 이루어 득의양양함을 이르는 말 2.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매우 마음이 쓸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뱃짐 내라 한다:** 남에게 은혜를 입고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짐을 잡음을 이르는 말
-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 사람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으며, 서로 오래 겪어 보아야 알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1. 자기에게 덕망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일정한 바탕이나 조건이 갖추어져야 그것에 합당한 내용이 따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덕이 높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겉으로 떠벌리고 잘난 체하거나 뽐내지 않는다는 말
-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노닐지 않는다:** 너무 결점이 없고 고고한 사람은 남들이 불편하게 여기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뜻
-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켜서 웅덩이의 물을 온통 다 흐리게 한다는 뜻으로, 한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이 그 집단 전체나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잘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밀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이 채워질 수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힘이나 밀천을 들여도 보람 없이 헛된 일이 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바늘이 가는 데 실이 항상 뒤따른다는 뜻으로,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바늘 끝만 한 일을 보면 쇠공이만큼 늘어놓는다:** 작은 일을 크게 과장하여 떠들을 이르는 말
-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을 훔치던 사람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소까지도 훔친다는 뜻으로, 작은 나쁜 짓도 자꾸 하게 되면 큰 죄를 저지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 조그만 바늘구멍으로 넓디넓은 하늘을 본다는 뜻으로,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는 매우 좁은 소견이나 관찰을 비꼬는 말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추울 때에는 바늘구멍 같은 작은 구멍에도 엄청나게 센 찬 바람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작은 것이라도 때에 따라서는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서는 바느질을 할 수 없는 법이다. 일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것이므로, 아무리 급해도 순서를 밝아서 일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바다는 메위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 아무리 넓고 깊은 바다라도 메울 수는 있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메울 수 없다는 뜻으로,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반찬단지애 고양이 발 드나들듯: 반찬단지애 고양이가 부지런히 드나든다는 뜻으로, 매우 자주 드나드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방귀가 잦으면 똥 싸기 쉽다: 어떤 현상과 연관이 있는 징조가 자주 나타나게 되면 필경 그 현상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뜻으로, 무슨 일이나 소문이 잦으면 실현되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배 먹고 이 닦기: 배를 먹으면 이까지 하얗게 닦아진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두 가지 이로움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배 주고 속 빌어먹는다: 자기의 배를 남에게 주고 다 먹고 난 그 속을 얻어먹는다는 뜻으로, 자기의 큰 이익은 남에게 주고 거기서 조그만 이익만을 얻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기본이 되는 것보다 덧붙이는 것이 더 많거나 큰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함께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는 말

뱀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하면 도리어 해만 입는다는 말

번갯불에 콩 볶아 먹겠다: 번쩍하는 번갯불에 콩을 볶아서 먹을 만하다는 뜻으로, 행동이 매우 민첩함을 이르는 말

범 무서워 산에 못 가랴: 아무리 범이 무섭다고 한들 산에 못 갈 것 없다는 뜻으로,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물리치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범 본 여편네 창구멍을 틀어막듯: 범을 본 여편네가 질겁하여 범이 창구멍으로 들어오지
나 않을까 걱정하여 창구멍을 틀어막는다는 뜻으로, 급한 나머지 임시변통으로 어리석
게 맞추려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범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사리를 따져 가며 법식대로 해결하는 것보다 완력이 먼저 힘을
쓴다는 말

병어리 냉기슴 앓듯: 병어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속만 썩이듯 한다는
뜻으로,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경
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서 금품을 뜯어냄을 비유적으로 이르
는 말

병 주고 약 준다: 남을 해치고 나서 약을 주며 그를 구원하는 체한다는 뜻으로, 교활하고
음흉한 자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병풍에 그린 닭이 해를 치거든: 병풍에 그린 닭이 해(닭이 올라얏게 가로질러 놓은 나무
막대)를 치는 경우를 가정하여,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어서 기약할 수 없음을 비유적
으로 이르는 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1. 내용이 좋으면 겉모양도 반반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겉모양새를 잘 꾸미는 것도 필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보리밥 알로 잉어 낚는다: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받거나, 적은 밑천으로 많은 이익을
볼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복날 개 패듯: 몹시 심하게 때리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봉사 기름값 물어 주기: 봉사는 기름불을 밝힐 필요가 없으므로 기름값을 물어 줄 까닭도
없다는 데서, 전혀 관계없는 일에 억울하게 배상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봉사 문고리 잡기: 눈먼 봉사가 요행히 문고리를 잡은 것과 같다는 뜻으로,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요행수로 어떤 일을 이룬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가까운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지 아니하면 음식이
짠맛이 날 수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거나 손쉬운 일이라도 힘을
들여 이용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부조는 앓더라도 제상이나 치지 말라: 도와주지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말라는 것을 비유
적으로 이르는 말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남의 재앙을 점점 더 커지도록 만들거나 성난 사람을 더욱 성나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비에 젖어 질척거리던 흙도 마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뜻으로,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 자기의 잘못을 잘 변명하고 사과하면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용서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비를 드니까 마당을 쓸라 한다: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시킨다는 뜻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간섭을 해서 기분을 망쳐 놓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비웃 두름 엮듯: 한 줄에 잇대어 달아서 묶은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빈 수레가 요란하다: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 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저 덤비기만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빛진 죄인이라: 빛진 사람은 빛 준 사람에게 죄인이나 종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구속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빛 좋은 개살구: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은 없는 개살구라는 뜻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여러 사람이 저마다 제 주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결국에는 배가 물로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나운 개 콧등 아물 틈이 없다: 성질이 사나운 사람은 늘 싸움만 하여 상처가 미쳐 나을 사이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또 덕분에 나팔 분다: 사또와 동행한 덕분에 나팔 불고 요란히 맞아 주는 호화로운 대접을 받는다는 뜻으로, 남의 덕으로 당치도 아니한 행세를 하게 되거나 그런 대접을 받고 우쭐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후 약방문: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약을 구한다는 뜻으로, 때가 지나 일이 다 틀어진 후에야 뒤늦게 대책을 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흘 굶어 담 아니 넘을 놈 없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몹시 궁하게 되면 못하는 것이 없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산 개 새끼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아무리 천하더라도 살아 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는 낫다는 뜻으로, 세상을 비관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

- 산 까마귀 염불한다:** 산에 있는 까마귀가 산에 있는 절에서 염불하는 것을 하도 많이 보고 들어서 염불하는 흥내를 낸다는 뜻으로, 무엇을 전혀 모르던 사람도 오랫동안 보고 듣노라면 제법 따라할 수 있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산 입에 거미줄 치랴:** 거미가 사람의 입 안에 거미줄을 치자면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 식량이 떨어져도 사람은 그럭저럭 죽지 않고 먹고 살아가기 마련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산보다 골이 더 크다:** 주가 되는 산보다 부차적인 골이 더 크다는 뜻으로, 사리에 맞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 범은 산에 가야 잡을 수 있고, 고기는 물에 가야 잡을 수 있다는 뜻으로, 목적하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 노력하여야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산에서 물고기 잡기:** 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산에서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산전수전 다 겪었다:**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웠다는 뜻으로, 세상의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었음을 이르는 말
-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친다:** 1.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이미 차지한 것까지 잃어버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새로운 일을 자꾸만 벌여 놓으면서 이미 있는 것을 챙기는 데에 소홀하면 도리어 손해를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산호 서 말, 진주 서 말 싹이 나거든:** 싹이 틀 수 없는 산호나 진주에, 그것도 서 말싹이 나 되는 것이 다 싹이 나는 경우를 가정하여,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어서 기약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살강 밑에서 숟가락 얻었다:** 남이 빠뜨린 물건을 얻어서 횡재했다고 좋아하다 임자가 나타나 헛되이 좋아한 것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삶은 팔이 싹 나거든:** 삶은 팔이 싹 나는 경우를 가정하여,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어서 기약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삼 년 먹여 기른 개가 주인 발등을 문다:**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부터 큰 화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삼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 가뭄은 3년 동안 계속되더라도 다소의 곡식을 거둘 수 있지만 장마는 석 달만 지속되어도 농작물뿐만 아니라 농토까지 유실되어 건질 게 없다는 뜻으로, 가뭄보다 장마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말
- 삼밭에 썩대:** 썩이 삼밭에 섞여 자라면 삼대처럼 곧아진다는 뜻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상주 보고 제삿날 다룬다:** 제삿날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상주와 제삿날을 가지고 시비한다는 뜻으로, 어떤 방면에 아주 잘 아는 사람을 상대로 어리석게 제 의견을 고집함을 비웃는 말
- 새 발의 피:** 새의 가느다란 발에서 나오는 피라는 뜻으로, 아주 하찮은 일이나 극히 적은 분량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새도 가지를 가려서 앓는다:** 새조차도 앓을 때 가지를 고르고 가려서 앓는다는 뜻으로, 친구를 사귀거나 직업을 택하는 데에도 신중하게 잘 가려서 택해야 한다는 말
- 새벽달 보자고 초저녁부터 기다린다:** 새벽에 뜬 달을 보겠다고 초저녁부터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일을 너무 일찍부터 서두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생쥐 불가심할 것도 없다:** 조그마한 생쥐가 입가심할 정도의 먹을 것도 없다는 뜻으로,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몹시 가난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서 발 막대 내저어 봐야 짚 검불 하나 안 걸린다:** 서 발이나 되는 긴 막대를 휘둘러도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다는 뜻으로, 가난한 집안이라 세간이 아무것도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서당 개 삼 년에 풍월을 한다:** 서당에서 삼 년 동안 살면서 매일 글 읽는 소리를 듣다 보면 개조차도 글 읽는 소리를 내게 된다는 뜻으로, 어떤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문에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서울 김 서방 찾기:** 넓은 서울 장안에 가서 주소도 모르고 덮어놓고 김 서방을 찾는다는 뜻으로, 주소도 이름도 모르고 무턱대고 막연하게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서울이 무섭다니까 남태령부터 긴다:** 서울 인심이 야박하여 낭떠러지와 같다는 말만 듣고 미리부터 겁을 먹는다는 뜻으로, 비굴하게 행동하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서투른 무당이 장구만 나무란다:** 자기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애매한 도구나 조건만 가지고 나쁘다고 탓함을 비꼬는 말
-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의술에 서투른 사람이 치료해 준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뜻으로, 능력이 없어서 제구실을 못하면서 함부로 하다가 큰일을 저지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설 사돈 있고 누울 사돈 있다:** 같은 경우라도 사람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설마가 사람 죽인다:** 그럴 리야 없을 것이라 마음을 놓거나 요행을 바라는 데에서 탈이 난다는 뜻으로, 요행을 바라지 말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해 놓아야 한다

는 말

성급한 놈 술값 먼저 낸다: 성급한 사람은 술을 얼마나 먹을지도 모르면서 먼저 술값을 치른다는 뜻으로, 성미가 급한 사람은 손해를 보기 마련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성인도 시속을 따른다: 성인군자도 시대적 풍속을 따라 임기응변을 하며 산다는 뜻으로, 보통 사람이 시속에 따라 사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섞을 지고 불로 들어가려 한다: 당장에 불이 붙을 쉼을 지고 이글거리는 불 속으로 뛰어 든다는 뜻으로, 앞뒤 가리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동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들다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난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소경 개천 나무란다: 개천에 빠진 소경이 제 결함은 생각지 아니하고 개천만 나무란다는 뜻으로, 자기 결함은 생각지 아니하고 애꿎은 사람이나 조건만 탓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소경 제 닭 잡아먹기: 소경이 황재라고 좋아하는 것이 알고 보니 제 것이었다는 뜻으로, 이익을 보는 줄 알고 한 일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소금 먹은 놈이 물켄다: 무슨 일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된 까닭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소금에 아니 전 놈이 장에 절까: 소금에 절여도 그대로인 것이 소금기가 덜한 장으로 절인다고 절여지겠느냐는 뜻으로, 더 큰 흥계나 모략도 이겨 낸 사람이 그보다 작은 어지간한 일에 못 견딜 리가 없다는 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언덕이 있어야 소도 가려운 곳을 비비거나 언덕을 디더 볼 수 있다는 뜻으로, 누구나 의지할 곳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시작하거나 이룰 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떠들썩한 소문이나 큰 기대에 비하여 실속이 없거나 소문이 실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손 안 대고 코 풀기: 손조차 사용하지 아니하고 코를 푼다는 뜻으로, 일을 힘 안 들이고 아주 쉽게 해치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 자신의 허물을 가렸으나 본질적으로는 가려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른다: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이해관계에는 밝아도, 잘 드러나지 아니하는 큰 문제는 잘 깨닫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술 심어 정자라: 술의 씨를 심어서 소나무가 자란 다음에 그것을 풍치 삼아 정자를 짓거나 또는 그것을 베어 정자를 짓는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여 성공하기까지는 너무도 까마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술개도 오래면 핥을 잡는다: 어떤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문에 오랫동안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게 됨을 이르는 말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 술잎만 먹고 사는 송충이가 갈잎을 먹게 되면 땅에 떨어져 죽게 된다는 뜻으로,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짓을 하다가는 낭패를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쇠귀에 경 읽기: 소의 귀에 대고 경을 읽어 봐야 단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

쇠뿔도 단김에 빠라: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하였으면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 소의 뿔을 단김에(열기가 식지 않을 적에) 빠지 않고 천천히 빠져 했다가는 기회를 놓쳐서 빠지 못할 수도 있다.

수박 겉핥기: 맛있는 수박을 먹는다는 것이 딱딱한 겉만 핥고 있다는 뜻으로, 사물의 속 내용은 모르고 겉만 건드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수염이 대 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배가 불러야 체면도 차릴 수 있다는 뜻으로, 먹는 것이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술 익자 체 장수 간다: 술이 익어 체로 걸러야 할 때에 마침 체 장수가 지나간다는 뜻으로, 일이 공교롭게 잘 맞아 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송어가 뛰니 망둥이도 뵈다: 제 분수를 모르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숯이 검댕 보고 나무란다: 더 검은 숯이 덜 검은 검댕더러 나무란다는 뜻으로, 제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숲이 깊어야 도깨비가 나온다: 일정한 바탕이나 조건이 갖추어져야 그것에 합당한 내용이 따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쉬 더운 방이 쉬 식는다: 일이 너무 급하게 되면 도리어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뜻으로, 힘이나 밀친을 적게 들인 것은 그만큼 보람도 적고 성과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시렁 눈 부채 손: 눈은 높아 좋은 것을 바라지만 손은 둔하여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비유

적으로 이르는 말

시루에 물 퍼 붓기: 구멍 난 시루에 물을 붓는다는 뜻으로, 아무리 수고를 하고 공을 들여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어떤 나무꾼이 신선들이 바둑 두는 것을 정신없이 보다가 제정신이 들어보니 세월이 흘러 도끼자루가 다 썩었다는 데서, 아주 재미있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십년공부 도로 아미타불: 오랫동안 공들여 해 온 일이 허사가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싼 것이 비지떡: 값이 싼 물건은 품질도 그만큼 나쁘게 마련이라는 말

쌈짓돈이 주머닛돈: 쌈지에 든 돈이나 주머니에 든 돈이나 다 한가지라는 뜻으로, 그 돈이 그 돈이어서 구별할 필요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썩어도 준치: 본래 좋고 훌륭한 것은 비록 상해도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부자는 망해도 삼 년 먹을 것이 있다.

쏘아 놓은 살이요 얹지른 물이다: 한번 저지른 일을 다시 고치거나 중지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아는 것이 병: 정확하지 못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지식은 오히려 걱정거리가 될 수 있음을 이르는 말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라: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리 없음을 이르는 말

아닌 밤중에 찰시루떡: 뜻밖의 횡재나 행운을 이르는 말. 옛날에 가난한 청년이 있었는데 하루는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았다. 마침 그날 밤 청년은 잔칫집 심부름을 하고 찰시루떡 한 접시를 얻어먹었다. ‘아닌 밤중에 찰시루떡’이라는 말은, 밤이 아닌데도 찰시루떡을 얻어먹게 되다니 이런 횡재가 어디 있는가 하는 뜻이다.

아닌 밤중에 흉두깨: 느닷없는 일을 당했을 때 쓰는 말. ‘흉두깨’는 옷감을 감아 다듬이질 하는 굵고 둥근 몽둥이인데 남자의 성기를 상징한다. ‘아닌 밤중에 흉두깨’라는 말은, 밤도 아닌 대낮에 남자가 들이닥치니 얼마나 놀랐겠는가 하는 뜻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우선 다급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둘러맞추는 임시 변통을 이르는 말 = 하석상대(下石上臺)

아침노을 저녁 비요, 저녁노을 아침 비라: 아침에 노을이 서면 저녁에 비가 오고, 저녁에 노을이 서면 아침에 비가 온다는 말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무슨 일을 하여도 되는 일이 없다는 뜻. ‘자빠지는’ 것은 뒤로 넘어지는 것인데도 앞에 있던 코가 깨진다는 것은,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이다.

안 먹은 씨아에서 소리만 난다: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씨아(목화 씨 빼는 기구)일수록 소리만 요란하다는 뜻으로, 못난 사람일수록 잘난 체하고 큰소리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 체하고 떠벌리기만 한다는 말

알고 보니 수원 나그네: 누군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전부터 잘 아는 수원 나그네였다는 뜻으로, 처음엔 누군지 몰라보았으나 깨달아 알고 보니 알던 사람이라는 말

얕느니 죽지: 수고를 조금 덜 하려고 남을 시켜서 시원치 아니하게 일을 하느니보다는 당장에 힘이 들더라도 자기가 직접 해치우는 편이 낫겠다는 말

아원 말이 짐 탐한다: 제격에 어울리지 않게 욕심을 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암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겉으로는 암전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판짓을 하거나 자기 실속을 다 차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양반은 얼어 죽어도 꺾불은 안 찢다: 아무리 궁하거나 다급한 경우라도 체면을 깎는 짓은 하지 아니한다는 말

어느 장단에 춤추랴: 장단이 까다롭고 대중이 없어 그에 맞추어 춤추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자주 변하여 가늠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느 집 개가 짖느냐 한다: 남이 하는 말을 무시하여 들은 체도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린이 말도 귀담아들여라: 어린이가 하는 말이라도 일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담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남이 하는 말을 신중하게 잘 들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지지리 못난 사람일수록 같이 있는 동료로 망신시킨다는 말

언 발에 오줌 누기: 일시적 효과는 있으나 곧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이르는 말. 발이 얼었는데 오줌을 누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따뜻해서 풀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도 잠시뿐이며 곧 발이 얼어서 동상에 걸리기 십상이다. = 동족방뇨(凍足放尿)

업은 아이 삼 년 찾는다: 무엇을 몸에 지니거나 가까이 두고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에 가서 오래도록 찾아 헤매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앞드려 절 받기: 상대방은 마음에 없는데 자기 스스로 요구하여 대접을 받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앞친 데 덮친 격이다: 넘어져서 힘들어 하고 있는데 위에서 겹쳐 누르는 상황으로,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불행이 닥친 상태를 이르는 말

여자 셋이 모이면 새 접시를 뒤집어 놓는다: 여자가 많이 모이면 말이 많고 떠들썩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란 매우 힘들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혈육은 다 귀하고 소중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잣밥에만 마음이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건성으로 하고 잇속에만 마음을 둔다는 말

오 리를 보고 십 리를 간다: 사소한 이익을 위해 먼길을 나선다는 뜻으로, 풍돈을 벌기 위해 고생을 무릅쓰는 장사꾼의 돈에 대한 집착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오뉴월 병아리 하룻별 쪼기가 무섭다: 음력 오뉴월에는 하룻별이라도 쪼면 동식물이 부쩍 부쩍 자라게 된다는 뜻으로, 짧은 동안에 자라는 정도가 아주 뚜렷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뉴월 소나기는 쇠등을 두고 다툰다: 오뉴월 소나기는 소의 등을 경계로 한쪽에는 내리고 다른 한쪽에는 내리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여름철에 국부적으로 내리는 소나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려눈에 물 터놓기: 매우 심술 사나운 짓을 이르는 말. 오려눈(올벼를 심은 눈)에 물을 터놓으면 벼가 제대로 영글지 못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자기의 능력 밖의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

옥에도 티가 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또는 좋은 물건이라 하여도 자세히 따지고 보면 사소한 흠은 있다는 말

올가미 없는 개장사: 밑천 없이 하는 장사를 낚잡아 이르는 말

옷이 날개라: 옷이 좋으면 사람이 돋보인다는 말

외삼촌 산소에 벌초하듯: 일에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고 마지못하여 건성으로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외손뼉이 못 울고 한 다리로 가지 못한다: 두 손뼉이 마주 쳐야 소리가 나지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일은 상대가 같이 응하여야지 혼자서만 해서는 잘되는 것이 아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외손뼉이 소리 날까: 두 손뼉이 마주 쳐야 소리가 나지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일은 상대가 같이 응하여야지 혼자서만 해서는 잘되는 것이 아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우물가에 애 보낸 것 같다: 어린아이를 우물가에 내놓으면 언제 우물에 빠질지 몰라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으로, 몹시 걱정이 되어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우물에 가 송충 찾는다: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콩밭에 가서 두부 찾는다. 새벽달 보자고 초저녁부터 기다린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일을 너무 벌여 놓거나 하던 일을 자주 바꾸어 하면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 어떠한 일이든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

우선 먹기는 곳감이 달다: 앞일은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당장 좋은 것만 취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울며 겨자 먹기: 맵다고 울면서도 겨자를 먹는다는 뜻으로,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하여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웃는 낯에 침 뱉으랴: 웃는 낯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을 수 없다는 뜻으로,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 나쁘게 대할 수 없다는 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꺼리고 싫어하는 대상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공교롭게 만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간혹 실수할 때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사람이 잘하면 아랫사람도 따라서 잘하게 된다는 말

음식은 갈수록 줄고, 말은 갈수록 는다: 먹을 것은 옮길수록 줄어들고, 말은 할수록 더 보태게 된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고 조심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의식(衣食)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 이와 관련된 한자성어로는 ‘의식족지영욕(衣食足之榮辱)’과 ‘금강산식후경(金剛山食後景)’ 등이 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요긴한 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럭저럭 살아 나갈 수 있음을 이르는 말

이름 좋은 하늘타리: 보기만 좋았지 아무 실속이 없는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빛 좋은 개살구

이리가 짚으니 개가 꼬리 흔든다: 이리가 짚으니 개가 꼬리를 흔들어 호응하듯이, 모양이나 형편이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익은 밥 먹고 선소리한다: 사리에 맞지 않은 말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인정은 바리로 실고 진상은 꼬치로 쎈다: 임금에게 바치는 물건은 꼬치에 쎈 정도로 적으나 관원에게 보내는 뇌물은 많다는 뜻으로,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일에 더 마음을 쓰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일각이 여삼추: 일각(한 시간의 4분의 1로서 곧, 15분)이 삼 년의 세월같이 여겨진다는 뜻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매우 간절함을 이르는 말

임자 없는 용마: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임자가 없으면 쓸모없다는 뜻으로, 자기를 알아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해 쓸모없거나 보람 없게 된 처리를 이르는 말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가 망하면 다른 하나도 망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입의 혀 같다: 일을 시키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 준다.

자는 범 코 찌르기: 그대로 가만히 두었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을 공연히 건드려 문제를 일으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다가 벼락을 맞는다: 급작스럽게 뜻하지 아니한 큰 봉변을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한참 단잠 자는 새벽에 남의 집 봉창을 두들겨 놀라 깨게 한다는 뜻으로, 뜻밖의 일이나 말을 갑자기 불쑥 내미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다가 얻은 병: 급작스럽게 뜻하지 아니한 큰 봉변을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사물만 보아도 겁을 냄을 이르는 말

자루 베는 칼 없다: 칼이 제 자루를 베지 못한다는 뜻으로,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가 처리할 수 없을 때 이르는 말 =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작은 고추가 더 맵다: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재주가 뛰어나고 야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작작 먹고 가늘게 싸라: 자기 분수에 알맞게 편안하게 생활하라는 말

잔솔밭에서 바늘 찾기: 잔솔밭(조그마한 소나무가 뻗뻗이 들어찬 숲)에서 바늘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는 뜻으로, 아무리 애써 해보야 헛일이라는 말

잘되면 제 탓, 못되면 남의 탓이다: 일이 잘못됐을 때 핑계나 구실을 대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을 피해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말.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말이다.

장님 코끼리 말하듯: 일부분을 알면서도 전체를 아는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장마다 꼴뚜기 날까: 자기에겐 좋은 기회만 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 수고하여 일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일에 대한 보수는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말

저승길이 대문 밖이다: 집을 나서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절에 가서 전국 달라 한다: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절에 간 색시: 아무리 싫어도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

절하고 뺨 맞는 일 없다: 남에게 겸손하게 대하면 봉변당하는 일이 없다는 말

정승 날 때 강아지 난다: 훌륭한 사람이 나면 따라서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난다는 말

제 껍에 넘어간다: 껍을 내어 남을 속이려다 도리어 자기가 그 껍에 속아 넘어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제 눈에 물 대기: 자기에게만 이롭도록 일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제 도끼에 제 발등 찍힌다: 자기가 한 일이 도리어 자기에게 해가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제 버릇 개 줄까: 한번 젖어 버린 나쁜 버릇은 쉽게 고치기가 어렵다는 말

제 털 뽑아 제 구멍에 박기: 융통성이 전혀 없고 고지식하기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죽제비도 낮짝이 있다: 지나치게 염치가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킨다: 욕을 당한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뒤에서 불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죄는 지은 데로 가고 덕은 닦은 데로 간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덕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

죽은 자식 나이 세기: 이왕 그릇된 일을 자꾸 생각하여 보아야 소용없다는 말

죽을병에도 쓸 약이 있다: 죽을병에도 쓸 약이 있듯이, 어떠한 곤경에서도 희망은 있는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는 말

줄수록 양양: 주면 줄수록 부족하게 여기고 더 요구하게 된다는 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자기가 자신에 관한 일을 좋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남의 손을 빌려야만 이루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 몹시 고생을 하는 삶도 좋은 운수가 터질 날이 있다는 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아무리 놀려 지내는 미천한 사람이나,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업신여기면 가만있지 아니한다는 말

지성이면 감천: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도 정성을 다 하면 아주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리어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말

지어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 일시적인 자극을 받고 한 결심은 오래 가지 못함을 이르는 말

지척이 천 리라: 서로 아주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오래 만나지 못하여 멀리 떨어져 사는 것과 같다는 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 본바탕이 좋지 아니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그 본색을 드러내고야 만다는 말

짚신도 제짝이 있다: 보잘것없는 사람도 제짝이 있다는 말

찢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겠다: 도무지 빈틈이 없고 아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차 치고 포 친다: 1. 무슨 일이나 당당하게 덤벼어 잘 해결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지나치게 제 마음대로 이리저리 마구 휘두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참나무에 결낫걸이: 단단한 참나무를 결낫 따위로 베려 한다는 뜻으로, 제 능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엄청나게 큰 세력에 부질없이 덤빔을 이르는 말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랴: 1. 욕심 많은 사람이 이곳을 보고 가만있지 못한다는 말
2. 자기가 좋아하는 곳은 그대로 지나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참새가 아무리 떠들어도 구렁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실력이 없고 변변치 아니한 무리들이 아무리 떠들어 대더라도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와 맞붙어 함께 다투지 아니한다는 말

참새가 작아도 알만 잘 간다: 몸은 비록 작아도 능히 큰일을 감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참새가 죽어도 짹 한다: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너무 괴롭히면 대항한다는 말

참외를 버리고 호박을 먹는다: 참외는 호박보다 더 맛있는데 뭘 모르고 호박을 탐한다는 뜻으로,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가진다는 말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

첫술에 배부르랴: 어떤 일이든지 단번에 만족할 수는 없다는 말

초년고생은 은 주고 산다: 젊은 시절의 고생은 장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경험이 되므로 그 고생을 달게 여기라는 말

초록은 동색: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라는 뜻으로,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한패가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초상난 데 춤추기: 1. 초상이 나서 슬퍼하고 있는 때에 춤을 춘다는 뜻으로, 인정 없고 심술 많은 짓을 이르는 말 2. 때와 장소를 분별하지 못하고 경망스럽게 행동하는 경

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초상집 개 같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빌어먹는 사람이나 공상이 끼고 초췌한 꼴을 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치마에서 비파 소리가 난다: 아주 바쁘게 싸대어 조금도 앉아 있을 겨를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아니하나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됨을 이르는 말 = 부화뇌동(附和雷同)

침 먹은 지네: 할 말이 있어도 못하고 있거나 겁이 나서 기를 펴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칼로 물 बे기: 다투었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 곧 사이가 다시 좋아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거기에 걸맞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콩과 보리도 분간하지 못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도 분간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고 못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콩으로 메주를 쏜다 하여도 곧이듣지 않는다: 아무리 사실대로 말하여도 믿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큰 독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작은 힘으로도 큰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큰북에서 큰 소리 난다: 크고 훌륭한 데서라야 무엇이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탐관의 밑은 안반 같고 염관의 밑은 송곳 같다: 탐관은 엉덩이에 살이 찌서 엉덩이가 안반(떡판)처럼 판판하고, 청렴한 관리는 엉덩이에 살이 빠져 송곳 같다는 뜻으로, 탐욕스러운 관리는 재산을 모으고 청렴한 벼슬아치는 가난하게 지낸다는 말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 어려운 일이나 고된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

터진 파리 보듯 한다: 사람이나 물건을 아주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 중요시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털도 아니 난 것이 날기부터 하려 한다: 쉽고 작은 일도 해낼 수 없으면서 어렵고 큰일을 하려고 나섬을 이르는 말

털도 안 뜯고 먹겠다 한다: 너무 성급히 행동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토끼 돌을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 하면 그 가운데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는 말
- 토끼가 제 방귀에 놀란다:** 남몰래 저지른 일이 염려되어 스스로 겁을 먹고 대수롭지 아니한 것에도 놀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티끌 모아 태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팔이 들이굽지 내굽나:** 자기 혹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더 쏠리거나 유리하게 일을 처리함은 인지상정이라는 말
- 팔로 메주를 쏘대도 곧이듣는다:** 지나치게 남의 말을 무조건 믿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당사자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시킬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푸춧간에 들어가는 소 걸음:** 별별 떨어져 무서워하거나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풀 बे기 싫어하는 놈이 단 수만 센다:**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그 성과만을 바람을 비꼬는 말
- 피천 한 닢 없다:**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말
-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그것을 변명하고 이유를 붙일 수 있다는 말
-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 일부만 보고 전체를 미루어 안다는 말
-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사물의 한 측면만 보고 두루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생각이 밝지 못하여 도무지 융통성이 없고 미련하다는 말
- 하늘 보고 침 빨기:** 하늘을 향하여 침을 빨아 보아야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자기에게 해가 돌아올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하늘을 쓰고 도리질한다:** 1. 세력을 믿고 기세등등하여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제 세상인 듯 교만하고 방자하게 거들먹거림을 비꼬는 말 2. 터무니없는 것을 믿는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말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 나갈 방도가 생긴다는 말
- 하던 지랄도 명석 펴 놓으면 안 한다:** 보통 때는 잘하던 일도 더욱 잘하라고 떠받들어 주면 안 한다는 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 잠깐 사귀어도 깊은 정을 맺을 수 있음을 이르는 말

한번 엮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일단 저지른 잘못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말

행차 뒤에 나팔: 나팔을 불고 나서 행차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행차 뒤에 나팔을 분다는 뜻으로, 일이 다 끝나서 필요 없게 된 뒤에 부산을 떨며 하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헌신짝 버리듯: 요긴하게 쓴 다음 아까울 것이 없이 내버리다.

헤엄 잘 치는 놈 빠져 죽고, 나무 잘 오르는 놈 떨어져 죽는다: 사람은 흔히 자기가 지닌 재주 때문에 실수하거나 죽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허 아래 도끼 들었다: 말을 잘못하면 재앙을 받게 되니 말조심을 하라는 말

헛바닥에 침이나 묻혀라: 속이 뻘히 들여다보이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얕은 수작은 그만두라고 핀잔하는 말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직접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 =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 노릇 한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득세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깊은 산에 있는 호랑이조차도 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찾아온다는 뜻으로, 어느 곳에서나 그 자리에 없다고 남을 홍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무리 위급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1. 적은 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커지기 전에 처리하였으면 쉽게 해결되었을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박씨 까서 한입에 털어 넣는다: 애써 조금씩 모았다가 한꺼번에 털어 없애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박에 말뚝 박기: 심술궂고 못된 짓을 함을 이르는 말. 호박에 말뚝을 박으면 그 호박은 못쓰게 된다.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 떨어졌다: 뜻밖에 좋은 물건을 얻거나 행운을 만났다는 말

혹 떼러 갔다 혹 붙여 온다: 자기의 부담을 덜려고 하다가 다른 일까지도 맡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흑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속여 흑을 떼었다는 소문을 들은 다른 흑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만나 흑을 떼려 했지만 오히려 흑을 하나 더 붙여 왔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다.

홀아비는 이가 서 말이고 홀어미는 은이 서 말이라: 여자는 혼자 살 수 있으나 남자는 집 안일을 보아 줄 사람이 없으면 살림이 근색하여진다는 말

홍수 난 데 벼락 친다: 홍수가 나서 피해가 심한데 거기다가 벼락까지 치는 상황으로, 불행한 일이 연달아 일어남을 이르는 말

화가 복 된다: 처음에 재앙으로 여겼던 것이 원인이 되어 뒤에 다행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수도 있다는 말

화약을 지고 불로 들어간다: 자기 스스로 위험한 곳으로 찾아 들어간다는 말

황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 어쩌다 우연히 이루거나 알아맞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 효성이 극진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자식 된 도리를 다할 수 있다는 말

흥정은 불이고 싸움은 말리랬다: 좋은 일은 도와주고 궂은일은 말리라는 말

2 관용구

가면을 벗기다: 거짓으로 꾸민 정체를 밝히다.

가슴에 못을 박다: 마음 깊이 원통한 생각이 맺히다.

가슴에 새기다: 잊지 않게 단단히 마음에 기억하다.

가슴이 뜨끔하다: 자극을 받아 마음이 깜짝 놀라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다.

가슴이 무겁다: 슬픔이나 걱정으로 마음이 가라앉다.

가슴이 미어지다: 마음이 슬픔이나 고통으로 가득 차 견디기 힘들게 되다.

가슴이 벅차다: 기쁨, 자부심 따위가 마음에 넘쳐 나다.

각광을 받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다.

간담이 서늘하다: 몹시 놀라서 섬뜩하다.

간에 기별도 안 가다: 먹은 것이 너무 적어 먹으나 마나 하다.

간이 떨어지다: 몹시 놀라다.

간이 붓다: 지나치게 대답해지다.

간이 작다: 대답하지 못하고 몹시 겁이 많다.

간이 콩알만 해지다: 몹시 두려워지거나 무서워지다.

간이 타다: 너무 근심스럽고 안타까워 속이 타는 듯하다.

간장을 태우다: 마음을 몹시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다.

건물을 달다: 공연히 혼자서만 애쓰며 안달하다.

결신이 들리다: 몹시 굶주리다.

경을 치다: 심한 형벌이나 문책을 내리다.

경종을 울리다: 잘못이나 위험을 미리 경계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다.

꿀탕을 먹다: 한꺼번에 크게 손해를 입거나 낭패를 당하다.

구색을 맞추다: 여러 가지가 고루 갖추어지게 하다.

국수 먹은 배: 실속 없고 헤프다는 뜻. 국수를 먹어도 조금만 지나면 속이 허해진다.

귀가 가렵다: 남이 제 말을 한다고 느끼다.

귀가 따갑다: 너무 여러 번 들어서 듣기가 싫다.

귀가 뚫리다: 외국말 따위를 알아듣게 되다.

귀가 솔깃하다: 그럴듯해서 마음이 끌리다.

귀가 여리다: 속는 줄도 모르고 남의 말을 그대로 잘 믿다.

귀를 의심하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다.

귀에 거슬리다: 자기 뜻과 맞지 않아 신경이 쓰이다.

귀에 못이 박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듣다.

귀에 익다: 어떤 말이나 소리를 자주 들어 버릇이 되다.

귀추가 주목되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나 결과를 궁금해 하다.

귓등으로 듣다: 듣고도 들은 체 만 체하다.

금이 가다: 사이가 나빠지거나 틀어지다.

꼭지를 따다: 처음으로 시작하다.

꼭사리 끼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겹다리로 끼다.

꿈무늬를 빼다: 슬그머니 피하여 물러나다.

꾸어온 보릿자루: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자리에서, 말없이 한쪽에 앉아 있기만 하는 사람을 농조로 이르는 말

핑 대신 닭: 핑(꼭 필요한 것)이 없을 때 닭(그보다는 못하지만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 한다는 말

- 핑 떨어진 때:** 의지할 데가 없거나 쓸모없게 되었다는 뜻. 때는 핑을 잡아야 제구실을 할 수 있는데 잡을 핑이 없으니 소용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 끝 부러진 송곳:** 가장 긴요한 곳이 탈이 나서 못 쓰게 됨을 이르는 말
- 난장을 맞다:** 몹시 화가 날 때 뺨는 말
- 날개가 돌치다:** 상품이 시세를 만나 빠른 속도로 팔려 나간다.
- 냄새를 맡다:** 일의 낱새를 알아차리다.
- 녹초가 되다:** 힘이나 기운이 다 떨어져 맥을 못 추다.
- 눈 뜨고 볼 수 없다:** 눈앞의 광경이 참혹하거나 민망할 정도로 아니꼬워 차마 볼 수 없다.
- 눈 밖에 나다:** 신임을 잃고 미움을 받게 되다.
- 눈도 깜짝 안 하다:** 조금도 놀라지 않고 태연하다.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매우 귀엽고 사랑스럽다.
- 눈에 띄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다.
- 눈에 밝히다:** 잊히지 않고 자꾸 눈에 떠오르다.
- 눈에 익다:** 자주 보아서 익숙하다.
- 눈에 차다:** 흡족하게 마음에 들다.
- 눈에 흙이 들어가다:** 죽어 땅에 묻히다.
- 눈을 붙이다:** 잠을 자다.
- 눈이 높다:** 수준이 높은 것에만 관심을 두고 여간한 것은 시시하게 여길 만큼 거만하다.
- 눈이 뒤집히다:**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에 집착하여 이성을 잃다.
- 눈이 맞다:** 두 사람의 마음이나 눈치가 서로 통하다.
- 눈이 빠다:** 뻥한 것을 잘못 보고 있을 때 비난조로 이르는 말
- 다리를 놓다:** 상대방과 관련을 짓기 위하여 중간에 다른 사람을 놓다.
- 다리품을 팔다:** 1. 길을 많이 걷다. 2. 남에게 품삯을 받고 먼 길을 걸어서 다녀오다.
- 덜미를 잡히다:** 못된 일 따위를 꾸미다가 발각되다.
- 덤터기를 쓰다:** 큰 고민거리나 허물을 남에게서 한꺼번에 떠맡게 되다.
- 독이 오르다:** 1. 독에 감염되다. 2. 독한 마음이 생겨나다.
- 된서리를 맞다:** 1. 되게 내리는 서리를 맞다. 2. 모진 재앙이나 억압을 당하다.
- 들통이 나다:** 비밀이 드러나다.

- 등골이 빠지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몹시 힘이 들다.
- 등을 돌리다:** 뜻을 같이하던 사람이나 단체와 관계를 끊고 배척하다.
- 판죽을 걸다:** 합의된 일을 판전을 부리며 어기다.
- 마가 끼다:** 요사스러운 기운이 끼어서 일이 제대로 안 풀리다.
- 맥을 못 추다:** 기운이나 힘을 전혀 못 쓰다.
- 맥이 빠지다:** 기운이 빠지거나 의욕이 없어지다.
- 머리가 굳다:** 1. 사고방식이나 사상 따위가 완고하다. 2. 기억력 따위가 무디다.
- 머리가 깨다:** 뒤떨어진 생각에서 벗어나다.
- 머리가 커지다:** 나이가 들어 몸집이 커지고 생각이 깊어지다.
- 머리를 굴리다:** 머리를 써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내다.
- 머리를 맞대다:**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마주 대하다.
- 머리를 숙이다:** 1. 진심으로 감복하여 경의를 표하다. 2. 상대의 세력에 굴복하다.
- 머리를 흔들다:** 1. 부인이나 거절의 뜻을 나타내다. 2. 몹시 싫어 진저리를 치다.
- 머리털이 곤두서다:** 무섭거나 놀라서 날카롭게 신경이 긴장되다.
- 명암이 엇갈리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하다.
- 모골이 송연하다:** 무엇을 보거나 어떤 일을 당하여 털이 곤두서고 온몸이 오싹해지다.
- 목구멍에 풀칠하다:** 굶지 않고 겨우 살아가다.
- 목에 핏대를 세우다:** 목의 핏대에 피가 몰려 얼굴이 붉어지도록 화를 내거나 흥분하다.
- 목에 힘을 주다:** 거드름을 피우거나 남을 깔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
- 목을 걸다:** 목숨을 바치거나 쫓겨날 각오를 하다.
- 목을 축이다:** 목이 말라 물 따위를 마시다.
- 목이 막히다:** 설움이 북받치다.
- 목이 붙어 있다:** 1. 살아남아 있다. 2. 어떤 직위에 간신히 머물러 있다.
-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몹시 안타깝게 기다리다.
- 바가지를 쓰다:** 1. 요금이나 물건 값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지불하여 억울한 손해를 보
다. 2. 어떤 일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억울하게 지게 되다.
- 바람이 들다:** 허황된 생각 때문에 마음이 들뜨다.
- 발 디딜 틈이 없다:** 복잡거리어 혼잡스럽다.
- 발 벗고 나서다:** 적극적으로 나서다.

- 발 뺨고 자다:** 마음 놓고 편히 자다.
- 발걸음을 재촉하다:** 길을 서둘러 떠나다.
- 발꿈치를 물리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다.
- 발등을 짝히다:**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다.
- 발목을 잡히다:** 1. 어떤 일에 잡혀 피할 수 없게 되다. 2.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잡히다.
- 발바닥에 불이 나다:** 부리나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 발을 구르다:** 다급해서 몹시 안타까워하다.
- 발을 끊다:** 오가지 않거나 관계를 끊다.
- 발이 넓다:** 활동 범위가 넓어 아는 사람이 많다.
- 발이 묶이다:** 어떤 곳에 갇혀 오도 가도 할 수 없게 되다.
- 발이 손이 되도록 빌다:** 손만으로는 부족하여 발까지 동원할 정도로 간절히 빌다.
- 밤이슬을 맞다:** 1. 밤에 돌아다니다. 2. 도둑질을 하러 다니다.
- 배가 등에 붙다:** 먹은 것이 없어서 배가 훌쭉하고 몹시 허기지다.
- 배가 아프다:** 남이 잘되어 심술이 나다.
- 배꼽을 잡다:** 폭소를 참지 못해 배를 움켜쥐고 웃다.
- 배를 두드리다:** 생활이 풍족하거나 살림살이가 윤택하여 안락하게 지내다.
- 배를 불리다:** 재물이나 이득을 많이 차지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다.
- 배알이 꼴리다:** 비위에 거슬려 아니꼽게 여기다.
- 배에 기름이 오르다:** 살림이 넉넉하여지다.
- 변덕이 죽 끓듯 하다:** 말이나 행동을 몹시 이랬다저랬다 하다.
- 변죽을 울리다:** 바로 집어 말을 하지 않고 둘러서 말을 하다.
- 복장이 터지다:** 몹시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다.
- 붓을 꺾다:** 문필 활동을 그만두다.
- 비위가 상하다:** 1. 비위가 좋지 않아 금방 게을 듯하여지다.
2. 마음에 거슬리어 아니꼽고 속이 상하다.
- 비위가 좋다:** 1. 비리거나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잘 먹다.
2. 아니꼬운 일을 잘 견뎌 내다.
- 비위를 맞추다:** 남의 마음에 맞도록 말이나 행동을 꾸미다.
- 뼈대가 있다:** 문벌이 좋고, 좋은 가풍과 기품을 지니다.

뼈를 꺾다: 몹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

뼈에 사무치다: 원한이나 고통 따위가 뼈속에 파고들 정도로 깊고 강하다.

뺨골이 빠지다: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을 하여 나간다.

산통을 깨다: 거의 다 된 일을 망쳐 버리다.

삼수갑산(三水甲山)을 가다: 매우 힘들고 험난한 곳으로 가거나 어려운 지경에 이르다.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은 모두 지형이 험한 데다 유배지로 이름이 나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삼수갑산(三水甲山)을 가다’고 하면 아주 멀고 험한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

생사람을 잡다: 아무런 잘못이나 관련이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다.

서슬이 시퍼렇다: 기세가 몹시 대단하다.

속을 달래다: 좋지 아니한 위장의 상태를 좀 편안하게 만들다.

손때가 묻다: 그릇, 가구 따위를 오래 써서 길이 들거나 정이 들다.

손발이 맞다: 함께 일을 하는 데에 마음이나 의견, 행동 방식 따위가 서로 맞다.

손사래를 치다: 거절이나 부인을 하며 손을 펴서 마구 휘젓다.

손에 땀을 쥐다: 아슬아슬하여 마음이 조마조마하도록 몹시 애달다.

손에 붙다: 익숙해져서 일의 능률이 오르다.

손을 끊다: 교제나 거래 따위를 중단하다.

손을 놓다: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다.

손을 맞잡다: 협력하여 행동하다.

손을 벌리다: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다.

손을 빌리다: 일손이나 노동력 따위를 잠시 빌리다.

손을 뻗치다: 이제까지 하지 아니하던 일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다.

손을 씻다: 부정적인 일 따위에 대해 관계를 끊다.

손이 뜨다: 일하는 동작이 매우 굼뜨다.

손이 맵다: 1. 손으로 살짝만 때려도 몹시 아프다. 2. 일처리가 꼼꼼하고 야무지다.

손이 크다: 씩씩이가 후하고 넉넉하다.

손톱도 안 들어가다: 사람됨이 몹시 야무지고 인색하다.

숨 쉴 사이 없다: 좀 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몹시 바쁘다.

숨을 거두다: 죽음을 맞이하다.

숨을 돌리다: 잠시 여유를 얻어 휴식을 취하다.

숨이 넘어가는 소리: 몹시 다급하여 급하게 내는 소리

숨이 턱에 닿다: 몹시 숨이 차다.

시치미를 떼다: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다.

심금을 울리다: 감동하게 하다.

씩수가 노랗다: 애초부터 발전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인다.

씨가 마르다: 어떤 종류의 것이 모조리 없어지다.

씨알머리가 없다: 1. 실속이 없거나 허찮다. 2. 뚜렷한 주관이나 생각이 없다.

아귀가 맞다: 1. 일정한 수량 따위가 들어맞다. 2. 앞뒤가 빈틈없이 들어맞다.

알랑방귀를 꺾다: 알랑거리며 아침을 떨다.

약이 오르다: 1. 고추나 담배 따위가 잘 자라 자극적인 성분이 많아지다.

2. 비위가 상하여 언짢거나 은근히 화가 나다.

어깃장을 놓다: 짐짓 반항하며 어긋나게 행동하다.

어깨가 가볍다: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거나 그 책임을 덜어 마음이 홀가분하다.

어깨가 움츠러들다: 떳떳하지 못하거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기분을 느끼다.

어깨가 으쓱거리다: 뽐내고 싶은 기분이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기분이 되다.

어깨가 처지다: 낙심하여 풀이 죽고 기가 꺾이다.

어깨를 나란히 하다: 서로 비슷한 지위나 힘을 가지다.

어깨를 짓누르다: 의무나 책임, 제약 따위가 중압감을 주다.

어깨에 짊어지다: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마음에 두다.

어안이 병병하다: 놀랍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막히다.

역장이 무너지다: 극심한 슬픔이나 절망 따위로 몹시 가슴이 아프고 괴롭다.

얼굴을 내밀다: 모임이나 자리에 잠깐 들르다.

얼굴이 두껍다: 염치가 없고 창피함을 모르다.

얼굴이 뜨겁다: 창피하여 남을 볼 면목이 없다.

얼굴이 반쪽이 되다: 얼굴이 몹시 수척해지다.

얼굴이 팔리다: 별로 좋지 않은 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다.

얼굴이 피다: 화색이 돌고 보기가 좋다.

엉덩이가 구리다: 부정이나 잘못을 저질러 떳떳하지 못하다.

영덩이가 무겁다: 한번 자리에 앉으면 좀체 일어나지 않다.

영문을 모르다: 일의 형편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다.

옆구리를 찌르다: 팔꿈치나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러서 비밀스럽게 신호를 보내다.

오금이 저리다: 저지른 잘못이 들통이 나거나 그 때문에 나쁜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다.

오지랖이 넓다: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하다.

이가 빠지다: 1. 그릇의 가장자리나 칼날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다. 2. 갖추어져야 할 것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빠져서 온전하지 못하다.

이골이 나다: 어떤 방면에 길이 들어서 익숙해지다.

이를 갈다: 몹시 화가 나거나 분을 참지 못하여 독한 마음을 먹고 벼르다.

이를 악물다: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겨 내려고 꼭 참거나 단단히 결심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다: 마음이 차분하지 못해 일을 할 수 없거나 능률이 오르지 않다.

일침을 놓다: 따끔하게 충고하다.

임자를 만나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책임자와 연결되어 능력이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다.

입 밖에 내다: 어떤 생각이나 사실을 말로 드러내다.

입만 살다: 실천은 하지 않고 말만 번드레하다.

입만 아프다: 여러 번 말하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말한 보람이 없다.

입술을 깨물다: 1. 북받치는 감정을 힘껏 참다. 2. 어떤 결의를 굳게 하다.

입에 달고 다니다: 입만 떼면 그 말을 하다.

입을 다물다: 말을 하지 아니하거나 하던 말을 그치다.

입을 닦다: 이익 같은 것을 혼자 챙기고 아닌 체하다.

입을 떼다: 말을 하기 시작하다.

입을 막다: 말이 나지 않게 단속하다.

입을 맞추다: 서로의 말이 일치하도록 하다.

입을 모으다: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말하다.

입이 가볍다: 경솔하게 떠들거나 비밀 따위를 쉽게 누설하다.

입이 귀에 걸리다: 몹시 좋아서 싱글벙글하다.

입이 더럽다: 말버릇이 고약해서 욕이나 험한 말을 잘하다.

입이 짧다: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

입이 천 근 같다: 매우 입이 무겁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 송곳 끝도 세울 수 없을 정도라는 뜻으로, 발 들여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꼭 들어찬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잔뼈가 굵다: 오랜 기간 일정한 곳이나 직장에서 일을 하여 그 일에 익숙하다.

전철을 밟다: 예전에 잘못이나 실패를 되풀이하다.

젖비린내가 나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태도나 기색이 보인다.

주눅이 들다: 기가 꺾여서 기운을 펴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다.

죽 끓듯 하다: 1. 화나 분통 따위의 감정을 참지 못하여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2. 번덕이 몹시 심하다.

죽을 쑤다: 일을 망치거나 실패하다.

줄행랑을 놓다: 김새를 맡고 도망을 치다.

진을 치다: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다.

찬물을 끼었다: 잘되어 가고 있는 일에 뛰어들어 분위기를 흐리거나 공연히 트집을 잡아 해살(훼방)을 놓다.

철퇴를 가하다: 호되게 처벌하거나 큰 타격을 주다.

초를 치다: 한창 잘되고 있거나 잘되려는 일에 방해를 놓아서 일이 잘못되거나 시들하여 지도록 만들다.

추파를 던지다: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은근히 눈길이나 신호를 보낸다.

치가 떨리다: 몹시 분하거나 지긋지긋하여 이가 떨리다.

침을 뱉다: 치사스럽게 생각하거나 더럽게 여겨서 멸시하다.

침을 삼키다: 1. 음식 따위를 몹시 먹고 싶어 하다. 2. 자기 소유로 하고자 몹시 탐내다.

칼자루를 쥐다: 상대를 좌우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다.

코가 꺾이다: 약점이 잡히다.

코가 납작해지다: 몹시 무안을 당하거나 기가 죽어 위신이 푹 떨어지다.

코가 높다: 잘난 체하고 뽐내는 기세가 있다.

코가 삐뚤어지다: 몹시 술을 많이 마시는 모양

콧대를 꺾다: 상대의 자만심이나 자신감을 꺾어서 기가 죽게 만들다.

콧방귀를 뀌다: 남의 말을 갇잡게 여겨 들은 척도 안 하다.

파김치가 되다: 몹시 지치거나 기운이 다 빠져서 느른해지다.

파문이 일다: 영향이 커서 여론이 동요하다.

판도를 바꾸다: 어떤 세력권이나 영향력을 바꾸다.

팔을 걷어붙이다: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피가 거꾸로 솟다: 피가 머리로 모인다는 뜻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피가 끓다: 1. 기분이나 감정 따위가 북받쳐 오르다. 2. 젊고 혈기가 왕성하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다: 큰 도움이 되다.

피가 마르다: 몹시 괴롭거나 애가 타다.

피도 눈물도 없다: 조금도 인정이 없다.

피를 나누다: 혈연관계에 있다.

피를 보다: 1. 싸움으로 피를 흘리는 사태가 벌어져 사상자를 내다. 2. 크게 봉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다.

피를 빨다: 재산이나 노동력 따위를 착취하다.

허리를 굽히다: 1. 남에게 겸손한 태도를 취하다. 2. 정중히 인사하다.

허리를 잡다: 웃음을 참을 수 없어 고꾸라질 듯이 마구 웃다.

허리를 펴다: 궁핍하던 살림이 좋아지다.

허를 내두르다: 몹시 놀라거나 어이없어서 말을 못하다.

허를 차다: 마음이 언짢거나 유감의 뜻을 나타내다.

홍역을 치르다: 몹시 애를 먹거나 어려움을 겪다.

화촉을 밝히다: 혼례식을 올리다.

활개를 치다: 1. 힘차게 두 팔을 앞뒤로 어긋나게 흔들며 걷다. 2. 의기양양하게 행동하다. 3. 제 세상인 듯 함부로 거들먹거리며 행동하다.

획을 긋다: 범위나 시기를 구분 지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다.